

[격려사]

『경찰법연구』 창간에 즈음하여



최기문 (경찰청장)

한국경찰법학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『경찰법연구』를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그동안의 경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주로 경찰제도나 경찰행정의 측면에 집중되어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여러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경찰문제를 법적으로 연구하고 그 활동의 결과물로서『경찰법연구』를 발간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.

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, 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찰법학회의 활동은 한 단계 높은 경찰로의 도약에 튼튼한 초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.

아직은 전인미답의 미개척 분야인 경찰법의 연구에 첫발의 디딤 경찰법학회의 노력에 큰 격려를 보내면서, 앞으로도 경찰법학회가 경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경찰법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함으로써 경찰과 법학자 사이의 튼튼한 가교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.

다시 한 번 『경찰법연구』의 창간을 축하드리며, 빠른 시간 내에 경찰법연구가 법학계의 권위있는 학술지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.

2003년 6월 1일

경찰청장 최기문.